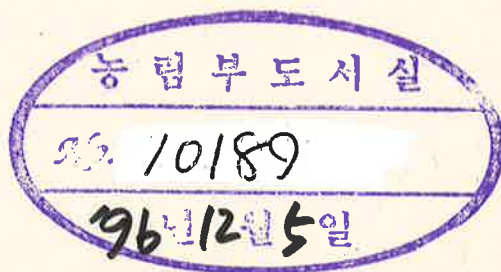


행정간행물등록번호
31000-51110-58-9537

世界貿易機構協定の 이행에 대응한
'96년도 農林水産業 構造調整事業 시행내용 보고서

1996



大韓民國政府

本 報告書는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96年度 農林水産業 構造
調整事業 施行內容을 國會에 報告하기 위하여 作成
하였다.

目 次

I. 農林水産業 構造調整事業의 基本 方向	3
1. 目標 및 方向	3
2. 構造調整事業 財源確保 및 投資計劃	7
3. 農政 制度改善 推進內容	14
II. 農林水産業 競爭力 強化를 위한 構造改善 施策	18
1. 農林漁業 專門經營體의 育成	18
2. 生産基盤 擴充 및 施設現代化	21
3. 尖端技術開發과 情報化 促進	30
4. 農林水産物 輸出振興 및 輸入管理 對策	35
III. 品目別 競爭力 強化 施策	40
1. 쌀 産業發展 綜合對策 推進	40
2. 園藝産業	46
3. 畜産業	49
4. 水産業	56
5. 林 業	63

IV. 農漁村 生活環境 改善 및 福祉增進 施策	71	
1. 다양한 所得源 開發	71	
2. 基礎 生活環境 改善	72	
3. 教育與件 改善	76	
4. 農漁村地域 國民年金 實施	79	
5. 醫療與件 改善	81	
V. 農林水產事業 中間 評價	85	
1 中間評價 概要	85	
2. 農林水產 產業構造의 變化	86	
3. 制度改革의 定着	88	
4. 投融資 事業의 課題	90	
5. 政策支援方式의 改革과 課題	93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style="padding: 2px 10px;">부 록</td></tr></table>	부 록	95
부 록		
1. 그동안의 農業構造改善 推進成果	97	
2. '96년도 農林水產業部門 行政規制緩和 및 制度改革 推進內容	102	
3. '96, '97 農特稅 豫算體系圖	107	

I. 農林水産業 構造調整事業의 基本方向

1. 目標 및 方向

지난해는 농어촌발전대책 추진의 첫해로서 WTO체제에 대응, 우리 농어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한 해였다.

'96년도에는 농어업인에게 확산되고 있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21세기 일류국가를 향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들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능력있는 전문경영인력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업인의 피부에 와 닿도록 현장농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며, 벼재배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매제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첨단기술개발, 농어촌 현장의 기술적 애로 해결, 수출유망지역에 대한 시장개척활동 강화등을 통해 기술농어업·수출농어

업의 활로를 본격적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네째, 생산단계에서부터 농가가 자율적으로 적정생산을 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농업 관측도 내실화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농어촌의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개선, 교육·의료 등 농어민 복지여건개선으로 농어촌을 매력있는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어촌을 1·2·3차 산업의 복합산업공간으로 개발, 활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우선 쌀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불안한 세계식량사정과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쌀 자급기반의 확충과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2004년까지 벼 재배면적 92만ha 확보, 쌀 전문경영체의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35% 절감, 생산단수 480kg 달성, '97년부터 약정수매제 실시,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예산업은 생산·유통·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전업화·단지화·계열화를 촉진하여 생산비 절감, 품질의 고급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 구조개선 촉진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형 축산

업을 육성한다.

임업은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등 산지의 자원화와 1·2·3차 산업이 공존하는 종합산업으로의 육성, 산림의 환경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은 연근해 어선 감축 및 어선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연안수역 자원을 적극 조성하며, 해면양식어업의 발전을 위한 고소득 양식품종개발, 담수어 집약양식 등 내수면 사업의 활성화와 원양어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각 부문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술·경영면에서 선도해 나갈 전업농 등 전문농어업 인력을 단계별로 육성해 나가고,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며, 원예,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시설현대화·자동화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애로기술과 첨단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산업화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96년말까지 농림수산 관련 12개 기관 통신망 연결 등 종합정보망 구축, 국내외 농림수산 데이터베이스개발, 해외 정보망 구축 등 이용자가 농림수산정보를 최대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전문 생산단지 지원 등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수출보험제도 활성화 등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

는 한편, 수입시기조절 등 시장접근 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탄력관세·산업피해구제 신청 등 수입관련 제도의 적극 활용, 원산지 표시제 및 동·식물검역 강화 등 농림수산물 수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 '96. 2월부터 6월에 걸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간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추진성과와 미비점을 분석,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보완토록하여 농어촌 발전대책의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

2. 構造調整事業 財源確保 및 投資計劃

가. '96 構造調整事業 財源 確保 狀況

(1) 豫算編成 基本方向

'96 구조조정사업 예산은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이 세계농업 및 농업인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아울러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재원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42조 구조개선투자사업('92~'98)」과 「15조 농어촌특별세 투융자사업('94~2004)」을 계획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2) 構造調整事業 豫算規模

42조 구조개선 및 15조 농특세 투자사업 예산을 모두 합친 '96 구조조정사업 예산 총규모는 7조3,510억원으로 '95 예산액 6조3,058억원보다 16.6% 늘어난 규모를 확보하였다.

이는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를 모두 합친 '96 정부예산 총규모(62조 9,626억원)가 '95년과 대비하여 14.6% 늘어난 것에 비해 2%p. 더 확보된 규모이다.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구조조정사업과 직결된 42조 구조개선사업 예산규모는 5조7,610억원으로 '95 예산액 4조7,626억원보

다 21% 증가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 사업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1조5,900억원을 확보하였다.

〈'96 정부 총예산과 구조조정사업 예산 규모 증가율 대비표〉

— 정부 총예산 : ('95)55조7,794 → ('96) 62조9,626억원,
12.9% 증

— 구조조정예산 : ('95) 6조3,058 → ('96) 7조3,510억원,
16.6% 증

〈'96년 42조 구조개선 및 15조 농특세사업예산과 '95예산규모 대비〉

— 42조 구조개선예산 : ('95)4조7,626 → ('96)5조7,610억원,
21% 증

— 15조 농특세예산 : ('95)1조5,432 → ('96)1조5,900억원,
당초계획대로 반영

(3) 構造調整事業 重點 投資分野 및 財源確保 內容

(가) 42조 構造改善 事業豫算

42조 구조개선 투융자사업 예산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중대형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확충에 필수적인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사업 등과 항구적인 물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예산은 '95 예산액 1조 1,416억원보다 34.3% 더 늘어난 1조 5,337억원을 확보하였다.

농업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되는 농업기계화, 과채류 및 화훼산업 시설현대화, 기술개발, 정보화사업과 도매시장 건설 및 산지유통시설 확충등 유통구조개선사업 예산도 '95예산액에 비해 사업별로 10.6%~33.8%까지 증액시켜 당초 목표대로 확보하였다.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원을 다양화함으로써 농촌에 살면서도 도시인 못지않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예산을 '95 예산액 3,518억원보다 50.4% 증액시킨 5,291억원을 확보하였다.

어업과 임업부문의 구조개선사업 예산 확보 상황을 살펴보면, 어업부문은 '97년 6월 30일로 수입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95 예산액 2,877억원 대비 36.6% 증액된 3,930억원을 확보하였고, 임업부문은 '95 예산 3,131억원보다 9.9% 증액된 3,440억원을 확보하였다.

(나) 15조 農特稅 事業豫算

15조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은 농업 경쟁력강화 사업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향상이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였다.

'96 농특세 총예산 1조 5,900억원 중 경지정리, 유통구조개선, 기술개발 등 농업 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은 9,459억원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다. 또 농촌도로, 하수도정비 및 주택개량, 폐수처리, 생활용수개발 등의 농촌생활여건개선 예산은 26.2% 수준인

4,175억원을 확보하였고,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의료서비스, 공공도서관 건립, 직업훈련, 학자금 융자,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은 13.7% 수준인 2,176억원을 확보하였다.

(4) '97 構造調整事業 重點投資 方向

'97년은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 추진 3년차가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농업구조조정사업의 추진성과를 보다 가시화시켜 나가는 한편 불안한 국내외 식량수급여건에 대응, 우리의 기초식량인 쌀자급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97 구조조정사업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96년 6월 마련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둘째 '96년 2월에서 6월중에 실시한 「농림수산사업 중간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투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농촌투자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화 시대에 맞는 현장중심의 상향식 자율농정체제가 뿌리를 내려가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96년도 42조 및 15조 투융자사업 예산규모〉

(단위 : 억원)

사 업 명	42조+ 15조계획	'92~'94	'95	'96	전년비 증가율 (%)
1. 생산기반정비	129,063	24,270	14,347	18,960	32.2
2. 농업기계화	30,720	10,620	4,030	4,457	10.6
3. 시설현대화	19,699	3,976	2,754	3,618	31.4
4. 기술개발및정보화	17,266	4,098	2,276	2,375	4.3
5. 정예인력육성	26,076	6,541	4,357	4,430	1.7
6. 소득원개발	24,682	6,417	3,518	5,291	50.4
7. 축산업구조개선	55,053	14,901	7,306	7,084	△3.0
8. 유통구조개선	37,027	6,364	4,816	5,461	13.4
9. 영농규모화	25,408	10,057	2,809	3,375	20.1
10. 생활환경·복지개선	76,573	4,331	8,403	8,574	2.0
11. 어업구조개선	37,760	7,610	4,645	5,811	25.1
12. 임업구조개선	24,650	7,783	3,797	4,074	7.3
계	503,977	106,968	63,058	73,510	16.6

〈'96년도 42조 구조개선투융자사업 예산규모〉

(단위 : 억원)

사 업 명	42조계획	'92~'94	'95	'96	전년비 증가율 (%)
1. 생산기반정비	86,063	23,950	11,416	15,337	34.3
2. 농업기계화	30,720	10,620	4,030	4,457	10.6
3. 시설현대화	17,699	3,976	2,554	3,418	33.8
4. 기술개발및정보화	12,226	3,948	1,600	1,825	14.1
5. 정예인력육성	23,576	6,541	3,995	4,083	2.2
6. 소득원개발	24,682	6,417	3,518	5,291	50.4
7. 축산업구조개선	55,053	14,901	7,306	7,084	△3.0
8. 유통구조개선	22,477	5,664	2,946	3,847	30.6
9. 영농규모화	25,408	10,057	2,809	3,375	20.1
10. 생활환경·복지개선	10,348	2,321	1,444	1,523	5.5
11. 어업구조개선	24,225	7,310	2,877	3,930	36.6
12. 임업구조개선	21,500	7,783	3,131	3,440	9.9
계	353,977	103,488	47,626	57,610	21.0

〈'96년도 15조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사 업 명	15조계획	'92~'94	'95	'96	비 고
1. 생산기반정비	43,000	320	2,931	3,623	○ 당초투자 계획인 1조5천억 반영
2. 농업기계화	—	—	—	—	
3. 시설현대화	2,000	—	200	200	
4. 기술개발및정보화	5,040	150	676	550	
5. 정예인력육성	2,500	—	362	347	
6. 소득원개발	—	—	—	—	
7. 축산업구조개선	—	—	—	—	
8. 유통구조개선	14,550	700	1,870	1,614	
9. 영농규모화	—	—	—	—	
10. 생활환경·복지개선	66,225	2,010	6,959	7,051	
11. 어업구조개선	13,535	300	1,768	1,881	
12. 임업구조개선	3,150	—	666	634	
계	150,000	3,480	15,432	15,900	

3. 農政 制度改善 推進內容

(1) 目標 및 方向

'96년은 그동안 추진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의 효과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장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해로서, 농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농정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구조개선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농가 및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가속해 나가야 하는 해이다.

특히 지방화 및 민주화시대에 맞는 자율농정제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에 대한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여, 개방화 및 세계화시대에 맞는 경쟁체제를 농업부문에든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정부는 '96년에는 자율농정체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과감히 개선하고, 농업부문의 경쟁을 보다 더 촉진해 나가면서 투융자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농림부 소관 투융자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97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 투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둘째, 농업인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고 농업부문의 경쟁을 저해하고 제약하는 각종 제도와 법령은 이를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조기에 개선해 나간다.

셋째,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분야도 광범위하게 포괄해 규율하

는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우리 농정제도와 관련 법령중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거나, 농업부문을 선진화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각종제도와 관련 법령은 국제적인 기준과 여건변화에 맞게 개선, 정비해 나간다.

(2) 行政規制緩和 및 制度改善 推進 內容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농림부 소관 투융자사업 전반에 대해 '96년 2월부터 6월중에 자체평가 및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한 외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중간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97 농림부문 예산편성시 반영, 농촌투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첫째, 농림사업 지원조건을 단순화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국고 보조율은 높이는 대신 농민지원사업은 보조를 줄이고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함양을 촉진토록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율을 12단계에서 5단계(20, 40, 50, 80, 100%)로 단순화시켰으며, 국가사업적 성격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원조건을 기존 국고 및 지방비 25%에서 국고 80%, 지방비 20%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 농업인 지원성격의 과실·채소·화훼생산 및 유통단지사업은 기존 국고 및 지방비 25%, 융자 30%에서 국고 및 지방비를 각각 20%로 낮추되 융자를 40%로 확대하였다.

둘째, 예산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다. 농업인후계자사업의 경우 정착 초기에 비교적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2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과수 및 화훼전업농 지원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과실생산유통사업 지원단가를 18%, 경지정리 지원단가를 5%, 밭기반정비 지원단가를 10%, 대구획 경지재정리 지원단가를 10%, 대형농기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지원단가를 5%씩 각각 인상하였다.

셋째, 토지구입 등 사업준비가 필요한 시설채소·화훼 생산유통 및 공판장 건설사업 등은 2년차 사업으로 개편하여 내실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 등에 대비하여 재해대책예산을 대폭 증액 계상함으로써 구조개선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한발대비 용수개발비 500억원, 상습가뭄지역 특별대책비 600억원등)

넷째, 농림사업평가를 정례화하기 위해 평가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실적가산금 예산 300억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 및 관련 법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기 위한 행정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국정운영 방향하에서, 정부는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시켜 주는 한편, 농업부문에 선진국 수준의 경쟁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분야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법령을 제·개정해 왔다.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 범정부차원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농림부내에 「규제완화작업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용, 농정시책에 반영하여 나가기 위해 「농정모니터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부록2 참조)

II. 農林水産業 競爭力 強化를 위한 構造改善 施策

1. 農林漁業 專門經營體의 育成

가. 勞動力의 質的向上으로 生産性 증대

농어촌 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로 인한 농어업 생산성 향상 둔화, 농어촌사회의 활력 감퇴 등 산업간·도농간의 불균형 요인을 없애고, 국내 농어업을 경쟁력있는 기술산업으로 발전시키 나가기 위해서 고급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갖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 후계자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가족단위 전업농을 육성하며, 앞서가는 전업농을 선도농어가로 지정하여 발전모델 경영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農漁業人 後繼者를 매년 1만명 선정하여 육성·지원

지난 '81년부터 농어촌인구의 노령화·부녀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95년까지 총 88,394명의 농어업인 후계자를 선정, 1조 465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

'89년부터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왔으나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92년부터 매년 1만명씩 지속적으로 선정·육성하여 전업농·선도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9,010명을 선정하여 1인당 15~30백만원씩 총 2천억원을 개인별 영농어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81~'93	'94	'95	'96	합 계
○ 인 원 (명)	68,937	8,981	10,476	9,010	97,404
— 농 업 인	62,346	8,340	9,730	8,227	88,643
— 어 업 인	6,591	641	746	783	8,761
○ 지원자금(억원)	6,965	1,500	2,000	2,000	12,465

다. 2004년까지 12만호의 專業農 육성

농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3년이상 경과된 자 중 경영 실적이 우수한 후계자에 대하여 '92년부터 전업농어업인으로 선정하여 5천만원 한도내의 사업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95년부터 전업농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 경영하고 영농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조작능력을 가지고 있는 55세미만 경영주를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발하여 2004년까지 10년간 120천호를 육성할 계획이다.

'92년부터 '95년까지 19,175호의 전업농을 선정하여 1조 1,233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쌀 11,435 농가등 총 17,878 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쌀 전업농에게 농기계구입자금 2,350억원(호당 2,350만원, 자담 10% 포함), 농지규모화자금 3,145억원(호당 3,145만원),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어업농가에게 1,000억원(호당 5,000만원), 축산 농가에게 4,049억원등을 지원하였다.

라. 2004년까지 970명을 先導農業經營體로 육성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업 경영체를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970개소를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95년에는 7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5,000만원(자부담 10%포함)씩 35억원을 지원하였고 '96년에도 80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1억원씩(자부담 20% 포함) 80억원을 지원하여 각분야의 모델적 농어가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

마. 農業會社法人의 육성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자본과 노동력을 모아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향상,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에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조세·금융상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95. 12월말 현재 1,179개소의 법인이 설립되었고 농기계 구입자금등 94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바. 農林水産系 高等學校 육성·지원

자영자 양성 고등학교를 도별로 1~2개교씩 농고 9개교, 수고 3개교를 선정하여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 등을 농고 1개교당 48억원, 수고 1개교당 4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 地方國立農科大學을 地域技術 開發의 中心體로 육성

국립농림수산계대학교와 산업대학 중에서 특성화대학을 선정하

여 첨단유리온실, 유전공학 등 기술·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1개교당 30~50억원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여건에 알맞는 농림어업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 個人農家에 대한 經營相談制度 실시

162개 농촌지도소에 기술·경영·농외활동등 종합상담기능을 갖춘 경영상담실을 설치하여 각종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등에게 전산기술을 지도하며, 개별 농가의 특성에 맞는 상담을 위해 150만 전 농가의 영농기반 자료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2. 生産基盤 擴充 및 施設現代化

가. 生産基盤 擴充

(1) 2004년까지 논面積 1,206천ha의 75% 耕地整理 완료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영농기계화, 쌀 경쟁력 제고대책 등 농업경쟁력강화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총 논면적(1,206천ha)의 75%인 902천ha를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대상 논 735천ha중 미정비된 84천ha를 '98년까지 완료하고, 진흥지역 밖의 논 167천ha중 미정비된 105천ha는 '99~2004년중 완료할 계획이다. '96년도에는 '95년도에 착수한 24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에 25천ha를 사업착수하여 '97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일반경지정리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총논면적	목 표	'95까지	'96계획	'97~'98	'99~2004
사 업 량 (천ha)	1,206	902	689	24(25)	108	105
－ 농업진흥지역	735	735	627	24(25)	108	－
－ 농업진흥지역밖	471	167	62	－	－	105
사 업 비 (억 원)		93,447	33,948	6,446	14,501	38,552

주 : ()는 가을착수

(2) 優良農地 200천ha를 2004년까지 大區劃 耕地再整理 추진

필지규모를 3,000평 이상으로 대형화 하고, 용수로를 분리정비, 구조물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 및 농산물의 운반에 편리한 규모로 확장·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을 2004년까지 200천ha를 목표로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착수하였다. '96년도에는 '95년도에 착수한 20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에 16천ha를 사업 착수하여 '97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획 경지재정리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95까지	'96계획	'97~'98	'99~2002
○ 사업량 (천ha)	200	5	20(16)	55(39)	120
○ 사업비 (억 원)	43,000	3,251	3,623	12,046	24,080

주 : ()는 가을착수

(3) 밭작물 生産基盤造成을 위한 밭 基盤整備 擴大

전체 밭 779천ha중 개발여건이 좋은 집단화된 밭작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가 잘 조직되어 있고, 사업희망도가 높은 지역등 110천ha를 대상으로 2조 5,794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95년까지 5,500ha를 대상으로 1,211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경작로, 관정등을 정비하였으며, '96년에는 8,000ha를 대상으로 1,121억원(국고 80%, 지방비 20%) 투자계획으로 '96. 10월 현재 진입도로, 경작로, 관정등을 주요 공정으로 하여 추진중이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95까지	'96계획	'97~'98	'99이후
○ 사업량 (천ha)	110	5.5	8	24.5	72
○ 사업비 (억원)	25,794	1,211	1,121	6,121	17,341

(4) 2010년까지 主要農路 22천km를 機械化耕作路 擴鋪裝事業 추진

영농의 전 과정이 기계화, 대형화, 자동화, 첨단화 되는 추세이며, 영농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해 '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22천km의 주요농로를 확포장할 계획이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추진계획〉

구 분	총계획	'95	'96	'97~2004	2005~2010
○ 사업량 (km)	22,000	200	1,308	14,492	6,000
○ 사업비 (억원)	28,600	187	1,262	19,351	7,800

(5) 排水改善率을 34%로 개선

상습침수 농경지 및 저습답 207천ha를 대상으로 '95년까지 67천ha가 완료되었으며, '96년도에는 120개 지구에 1,060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19개 지구 3천ha를 완공하여 배수개선율을 34%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95까지	'96계획	'97이후
○ 사업량 (천ha)	207	67	3	137
○ 사업비 (억원)	27,700	5,310	1,060	21,330

(6) 水利施設 改補修

3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개보수가 시급한 농조수리시설,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를 대상으로 전체 개보수대상 14,251개소 중 '95년까지 4,509억원을 투자하여 4,757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96년도에도 134개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95까지	'96계획	'96이후
○ 농 조 수 리 시 설	12,708개소	4,486	90	8,132
○ 국가관 리 방 조 제	76	27	11	38
○ 지 방 관 리 방 조 제	1,467	244	33	1,190
계	14,251	4,757	134	9,360
사 업 비	25,929억원	4,509	1,102	20,318

(7) 農業用水 開發

'95년까지 총논면적 1,206천ha중 907천ha에 대한 용수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논 735천ha에 대한 수리시설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규개발 '96천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수부족지 150천ha에 대한 보강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다.

'96년도에는 2,516억원을 투자하여 50천ha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6천ha를 완공할 계획에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계획〉

총논면적	목 표	'95까지	'96계획	'97~'2004	2004이후
1,206천ha	1,100	907	6	88	99

(8) 새만금지구 등 大單位 農業 綜合開發事業 추진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새만금지구를 비롯한 8개지구, 139천ha를 대상으로 '95년까지 31%(9,959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고, '96년도에는 40%(국고 1,977억원, 농지관리기금 775억원 계 2,752억원)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지 구 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추 진			사업기간
			'95까지	'96	'97이후	
계(8지구)	138,790	31,933	9,959	2,752	19,222	
영 산 강 (II)	20,700	3,368	2,983	150	235	'76~'98
대 호	7,700	1,856	1,811	45	-	'80~'96
미 호 천 (II)	4,430	1,281	351	150	780	'89~'99
금 강 (II)	43,000	4,158	486	210	3,462	'89~2004
홍 보	7,960	2,224	449	240	1,535	'91~2001
영 산 강 (III - 1)	8,100	3,280	31	90	3,159	'95~2003
영 산 강 (III - 2)	6,800	2,414	552	93	1,769	'89~2004
새 만 금	40,100	13,352	3,296	1,774	8,282	'91~2001

※ 새만금 지구는 방조제 축조 내역임.

나. 施設現代化

(1) 米穀綜合處理場 設置 확대

농가가 생산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처리하는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쌀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고품질의 지역별 특산미를 공급해 나가는 한편 수확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94년까지 147개소인 미곡종합처리장을 2000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해 나가면서 인근 쌀 작목반과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園藝·特用作物 施設 現代化

채소·과수·화훼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 및 토양등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 풍·흉의 차가 심하게 나타나는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받기반정비, 관수시설의 확보, 비가림시설, 공동육묘장 설치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절감에 의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리온실, 첨단생산시설과 예냉시설등 유통시설을 갖춘 생산·유통 종합단지로서 과수 900개소, 시설채소 530개소, 화훼 235개소를 2004년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유리온실 설치를 확대하고, 온실의 표준화 및 시설자재 국산화로 설치단가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현장애로 기술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을 개발, 파종·수확 등 전작업을 기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96 원예·특작분야 생산·유통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계	개소 388	537,124	126,421	178,208	125,295	107,200
채 소	80	210,980	53,758	62,619	52,632	41,971
과 수	150	189,000	47,250	56,700	47,250	37,800
화 획	20	77,240	19,310	23,172	19,310	15,448
특 작	138	59,904	6,103	35,717	6,103	11,981

(3) 畜産施設 現代化

축사시설 현대화, 초지조성, 급이·급수시설 자동화등 전업 양축농가 육성·지원을 계속하여 '96년도에는 4,049억원을 지원하고,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0년까지 총10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96년도에는 5개소(기존 3, 신규 2)에 123억원을 지원하였다.

전문경영체가 생산·가공·유통을 종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양축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도축·가공·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경영체는 양질의 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토록 하기 위해 축산 계열화를 지원하고 있다.

축산계열화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돼지계열화는 12개업체가 중심이 되어, 712농가가 참여하고, 육계계열화는 14개업체에 1,306농가, 산란계계열화는 2개업체에 112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4) 農業人등의 加工産業 參與 擴大를 위한 지원 강화

농산물 가공으로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농업인등에게 환원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전통식품의 개발·보존 등을 위하여 정부는 농업인등과 생산자단체의 산지 가공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농업인들이 쉽게 가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품목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가공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가공산업육성지원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경영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공산업체에게는 시설건설 및 설비, 포장개선사업, 원료구입 자금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96년에는 1,45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식품의 국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설전시판매장을 '96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우편판매제도, 택배제도등을 도입하여 실시중에 있다.

3. 尖端技術開發과 情報化 促進

가. 農林水産 技術開發事業 推進

(1) 事業概要

농림수산업 분야에 타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응용을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애로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의 농림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2004년까지 4,650 억원(현장애로기술 1,650, 첨단기술 3,000)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애로기술은 '94년부터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영립현장에서 제기된 재배, 사양, 양식,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환경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로서 지역주민이 개발을 원하고 단기간내 해결이 가능하며, 기술개발시 농림어업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분야이다.

첨단기술개발사업은 '95년부터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이용하여 농림어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타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어업 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이다.

이를 위해 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구로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농림수산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기술개발사업의 장·단기 목표 및 추진 전략 수립, 연구과제의 발굴·선정·평가 및 사후관리,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課題選定 推進狀況

'96년 10월 현재 연구수행중인 과제는 560건이며, 이중 현장애로기술개발이 340건, 첨단기술개발이 220건이다.

현장애로기술은 '94년에 204건, '95년에 165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369건이고, '94년에 선정된 과제중 17건은 개발이 완료되어 농림수산업 현장에 산업화하여 활용중이며, 현재 계속 연구수행중인 과제는 '94년 과제 175건, '95년 과제 165건 등 총 340건이다.

첨단기술은 '95년에 처음으로 220건이 선정되어 연구수행중이다.

〈첨단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 현황〉

(단위 : 건)

구 분	년 도	연 구 과 제			비 고
		선 정	계 속	완 료	
현장애로	'94	284	255	65	본부완료과제 17건 농진청 완료과제 80건
	'95	285	285	32	
	소 계	569	540	97	
첨단기술	'95	220	220	—	
합 계		789	760	97	

※ 농진청 과제('94년 80과제, '95년 120과제) 포함

(3) '96 制度改善

과제의 심사·평가과정에서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의 비밀서면 평가이외에 공개발표 평가를 추가하였으며, 연구능력과 연구시설이 미흡한 연구자의 과제가 선정될 우려가 있어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기본적인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응모를 제한하였고, 과제의 심사·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자기 과제와 소속 기관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심사·평가를 배제토록 하였다.

연구개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연구수행중인 과제에 대한 현장확인점검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사업 완료후의 산업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인, 산업계, 농어촌 지도기관의 참여과제는 심사·평가지 우대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나. 情報化 促進

(1) 農林水産綜合情報網 구축

농림수산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2년부터 추진해왔던 농림수산 부가가치통신망(VAN)구축·운영은 이용회원 및 이용시간의 급속한 증가추세와 함께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농림수산관련기관간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인력·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종합정보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대농어민 정보제공창구를 농림수산정보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관별 전문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농림수산관련 DB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농림수산종합정보망 구축은 각 기관간 전용회선을 통해 '96년말까지 농림수산 관련 12개기관과 통신망을 연결 할 계획이다.

(2) 國內外 農林水產 D/B 개발

국내외 농림수산 D/B개발은 농어가 경영혁신·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 및 필수 D/B의 조기구축을 위해 관련 정보제공자(IP)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정보제공자(IP)가 '96년 8월 현재 59개에서 '97년말까지 100개, 2001년까지는 2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기관의 D/B개발 능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추진하여 현재 9개분야 85개의 D/B를 2001년까지 149개의 D/B로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정보이용자의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정보이용증대에 부응하고, 정보검색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D/B의 멀티미디어화 및 하이퍼텍스트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農林水產 海外情報網 구축

해외 농림수산정보망구축은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업인, 농업정책입안자 등에게 해외 농림수산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농업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가격정보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관련국가와 직접 통신망을 연결하여 리얼타임(real-time)으로 제공하고, 신뢰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해당국가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연결하여 관련정보를 수집·제공할 계획이다.

(4) 農業用 S/W 개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는 농업생산의 과학화, 농업경영의 합리화, 품질의 세계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컴퓨터기기 보급확산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측, 분석, 진단, 평가, 의사결정에 이르는 생산·경영의 전과정에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적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95년까지 9종의 농업용 S/W를 개발·보급하였고, '96년에는 5개분야 5종의 S/W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5) 農漁業情報 利用環境 개선

(가) 農漁業人 情報通信 利用 教育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해 나갈 정예 농어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이용교육, 농업용 S/W 활용교육 등을 중심으로 '95년까지 1,661명의 집합교육 및 2,070명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친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96년에도 농어민정보통신이용교육 1,500명, 농업경영 및 정보화 교육 1,500명, 농정모니터 운영교육 1,200명 등 총 4,2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향후 2001년까지 전업농·농어업인후계자·농업법인체·작목반 등 전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예 농어업인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이용교육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나) 品目別 情報網 구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생산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생산농업인 상호간의 재배·사양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PC통신을 통한 소비자 및 생산자간의 직거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품목별 정보망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단계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유통마진 축소 및 유통물량의 사전 조정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농어업인의 자조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4. 農林水產物 輸出振興 및 輸入管理對策

가. 農林水產物 輸出振興

(1) 國內 輸出産業 基盤 구축

화훼, 돼지고기 등 경쟁력있는 수출전략 품목 위주로 농림수산물 수출전문생산단지를 '95년도 59개소에서 2004년까지 144개로 확대·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 11개소를 지정하여 생산유통 지원, 품질개선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경쟁력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출유망 품목 및 수출급신장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목표를 선정하여 목표관리제 운용에 의한 수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96. 9월말현재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농·축산물이 증가하여 1,323백만불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12.2%가 증가했으며, 149개국으로 수출선이 다변화 되었으며 수출품목수 또한 849개로 증가하였다.

〈농림수산물 수출전문 생산단지 확대 조성계획〉

품 목 별	'95년까지	'96	2004까지
채 소 류	3	2	21
과 실 류	9	5	30
화 훼 류	7	4	53
돼 지 고 기	40	—	40
계	59	11	144

(2) 輸出情報體系 개선

'97년까지 농수산물 100개 품목에 대해 무역정보 D/B 구축을 목표로 '96년도에 35개 품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농업무역관, 정보제공기관과의 정보망구축을 확대하여 해외 정부수집을 강화하고, 이들 정보를 농림수산종합정보망(AFFIS)과 연결하여 공중통신망(천리안, 하이텔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도록 추진중이다.

(3) 海外 農水産物 市場 개척 및 弘報 강화

'96년중에 동경에 농업무역관을 개설하여 일본 수출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국제박람회 참가, 특별기획전 개최 등으로 '96. 10월 현재 11회에 걸쳐 118백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

수출유망 상품(18개업체, 41개품목)에 대해 현지기호와 성향에 맞는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주요국 교포 및 현지 무역상을 대상으로 해외 모니터를 지정하여 현지 산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이를 종합정보망과 연결, 분산·전파하고 있다.

(4) 輸出支援體制 개선 및 資金支援

우수 농수산물 구매·유통 및 시설현대화 추진업체에 대하여 1,827억원을 지원하여 자금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95.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50% 인하(2%→1% 등)하고 가격상승위험 보상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하였다.

또한 생산자·수출업체가 수출과정에서 겪고있는 현상으로 요인을 발굴, 해소하기 위해 농림부, 유통공사등에 「수출애로 상담실」을 설치하여 '96년 9월말 현재 100여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나. 輸入管理 對策

(1) 市場接近物量의 적절한 輸入管理 추진

WTO 협정내용과 품목성격을 고려하여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 83개 주요품목은 국영무역으로, 돼지고기, 닭고기등 25개 품목은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하여 그 이익금을 징수하여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국내 생산시기를 감안, 수입시기를 조절하는 등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로 국내농업보호와 WTO 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關係法上的의 각종 制度의 적극 활용

저가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생산기반이 취약한 국내농가 피해예방을 위하여 무, 당면, 표고버섯 등 11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고(표고버섯 : 30%→90%), WTO이후 신규개방품목의 수입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낙화생, 메밀, 녹두, 고구마, 감자 등 61개 품목의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품목의 경우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구제토록 하는 등 국내 관련법상의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3) 原產地表示制 實施 團束 강화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유통되는 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산(178개), 국내산(127개) 및 가공품(51개)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원산지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행위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 질서확립 및 국내산과의 차별화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

(4) 動·植物 檢疫 機能 강화

WTO 출범에 따라 검역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2단계 동·식물검역기능 강화계획('96~'98)을 수립하여 2000년대의 선진검역 검사체제를 확보토록 하는등 동·식물검역기능을 강화하여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농업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5) 日日 自動 輸入動向 分析體系 정착

WTO 이후 수입자유화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과 On-

Line으로 연결하여 일일자동 수입동향 분석체계를 정착시키고, 수입급증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정관세 부과 및 산업피해구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 개방체제하에서의 적극적인 수입관리로 국내농업 및 관련산업보호에 보다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III. 品目別 競爭力 強化 施策

1. 쌀產業發展 綜合對策 推進

가. 쌀產業의 與件變化

벼 재배면적의 급속한 감소와 재해 등에 의한 생산단수의 정체로 인해 최근 쌀 생산량이 33백만석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소비감소 추세는 둔화됨에 따라 자급율이 88%수준까지 하락하고, '90년대 1,406만석이었던 쌀 재고도 '96년말에는 278만석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국제곡물 재고도 261백만톤으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으며, 쌀의 국제가격 또한 톤당 452불로 급등하는 등 세계 식량사정 또한 불안한 실정이다.

세계 쌀 생산량 3억6천만톤중 중단립종 교역량은 2백만톤으로 국제 쌀 시장구조가 취약하여 어느나라에서건 추가수입이 있을 경우 국제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물량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되기 때문에 식량안보측면에서의 적정재고 확보 및 쌀 자급기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나. 重點 推進施策

(1) 適正 벼 栽培面積의 확보

2004년까지 논면적 110만ha를 확보하고 벼재배면적은 92만ha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우량논을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차등부과하며, 농업진흥지역 쌀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자금 특별지원, 수매량 우대배정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체토지로서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택지, 공단 등을 개발할 때 준보전임지를 70%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농지·산지 전용 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논이 유희화 되는 것이 방지하기 위해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로개설 등 간이정비를 추진하고, 개발여건이 양호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 사업을 확충하여 벼 이외 작물의 밭 재배를 유도할 계획이다.

(2) 專門經營體 육성과 經營規模 확대

2004년까지 5~20ha규모의 전업경영체 6만호, 50~100ha 규모의 법인경영체 2000개소를 목표로 경영체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전문경영체 육성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

전업경영체는 가족 노동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문경영체로 육성하며, 법인경영체는 고생산성, 저비용 기업형태의 전문경영체로 육성하며, 소규모 복합경영체는 20~30호(20~30ha)단위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한 생산계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쌀 전문경영체 육성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영농후계자의 농지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고, 장기임대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하며, 농지임대차 선급금 및 농지구입자금 장기저리융자, 농기업 경영자금 지원등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生産基盤整備

진흥지역내의 논 74만ha의 항구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일반경지정리는 '98년까지, 수리시설은 2004년까지 완료하고 대구획 경지정리는 2004년까지 20만ha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지정리 대상지를 재점검하고, 영농불리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에 대해 '97년부터 소규모 기반정비를 추진하며, 한해 상습지 및 천수답의 용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암반관정개발을 30천ha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용수개발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4) 農機械 利用效率 極大化와 競爭力 제고

'97년까지 경운·정지·이앙·수확 등 주작업 완전기계화를 목표로 평야지, 산간지 등 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업경영체, 법인경영체, RPC등 규모별 기계화 모델을 설정하고, 농기계 및 부품의 규격표준화 촉진과 농기계 조작, 수리·이용 능력제고를 위한 지도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산 신기종 개발자금을 지원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농기계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5) 高品質 多收性 品種開發 및 生産性 향상

2004년까지 10a당 480kg의 안정 생산단수 확보를 위한 다수성 품종을 개발하고 벼 품종개발 및 보급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우수 신품종 보급을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6) 쌀 流通革新

민간유통활성화를 통해 시장에서 품질에 따라 제값을 받도록 함으로써 양질미 생산을 유도하고, 품질인증제를 확대 실시하며, 농산물검사소의 쌀 품질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품질 차별화 및 포장 규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쌀 주산지에 2000년까지 RPC 400개소를 설치하여 쌀 작목반·농업회사법인 등과 생산·가공·판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수확기 산물벼 처리를 확대하고, 농협 물류센터, 양곡 유통센터 확대설치 등 유통체계를 다원화하여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7) 收買制度 改善

쌀 수급상황의 변화와 WTO체제하의 가격지지 제약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수매제를 약정수매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연초에 약정수매량과 약정가격을 예시한 다음 봄철에 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일정수준을 선도자금으로 지급하고, 약정농가는 수확기에 정부수매에 응할 것인지, 시중에 출하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시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선도자금에 일정금리를 더하여 반환하면 된다.

약정수매제가 실시되면 연초에 수매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므로 농가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선도금 지급으로 영농기 자재구입등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8) 規模化 促進을 위한 直接支拂制 시행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이양을 통한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새로운 직접지불제도를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의 고령농가로서 은퇴직전 3년이상 벼농사를 짓고 경영농지를 인근의 전업농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농업인으로 하되 규모확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의 논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경영이양후에도 일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와 별도로 환경보전,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우리의 경제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 2004年 쌀產業의 비전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쌀 생산은 3,070만석 수준을 유지하여 수급이 안정되고, 농업진흥지역의 기반 정비와 용수공급이 완비되며, 그 중 25%의 농지는 대구획 경지 정리가 완비되어 대형기계에 의한 일관 기계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쌀 전문경영체가 전체 쌀 생산량의 65%, 유통량의 80%수준을 담당하게 되어 쌀 산업의 핵심주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며, 전문경영농가의 10a당 생산비는 '94년 대비 35%정도 감소되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전문경영체의 소득은 '94 불변가격 기준으로 50백만원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2. 園藝產業

가. 品目別 特성에 맞게 戰略 수립

주산단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기계화·시설자동화를 통해 규모화된 전업적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사과·배·시설채소·꽃등은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추·마늘·양파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정을 유도한다.

나. 品目別 主要 推進計劃

(1) 菜 蔬

(가) 양념채蔬

○ 生産者組職을 통한 規模化 및 生産·流通 지원

고추, 마늘 등 품목별로 주산단지 조합 및 농업인 중심으로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농가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가공·유통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영농규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비가림시설·관수시설·이식기·고추세척기·건조기, 종합처리장, 공동육묘장 등 주산단지 생산·유통시설을 2004년까지 170개소를 지원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유통·가공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技術開發 및 機械化 지원으로 生産費 節減

2004년까지 전작업 기계화가 이루어 지도록 생력기계화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고추 1회 수확품종 등 품종 및 재배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需給 및 價格安定

농가 스스로 생산·출하는 자율적 조절에 의한 가격안정이 이루어 지도록 수급·가격 예측정보를 전파하고, 각종 기금을 생산자조직에 지원하고 있다.

(나) 施設菜蔬

○ 經營規模 확대 및 省力化

시설면적 5ha이상의 시설채소 전문조직을 2004년까지 530개소를 조성하고, 육묘와 재배를 분업화하여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 綜合支援體系 구축

농촌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분야별 역할분담 및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농촌지도소 중심으로 농가 애로사항을 one-stop 해결할 계획이다.

○ 施設資材 標準·規格화와 國產化

국내의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원예시설, 자재 전문업체에 대한 농업용 기자재 생산시설 자금으로 '92년부터 매년 3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安定的 輸出확대 基盤 造成

오이, 가지, 토마토 등 수출가능품목을 대상으로 수출단지 2004년까지 21개소를 조성하고,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표준규격출하 촉진 및 수출 수매지원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 果 樹

(가) 生産·流通·加工·輸出등 綜合支援事業 실시

2004년까지 생산유통조직 900개소를 중점육성하는 등 경쟁력있는 생산자조직 및 전업농을 육성하고, 작업로 개설, 관배수시설, 토양개량 등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을 개선하며, 자동관수시설, 고성능방제기등 노동력 절감 기계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노동시간을 감축하여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출하조절, 유통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산지유통체계 개선으로 유통효율을 극대화하며, 50ha기준 30개소의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기반시설, 산지유통시설등을 우선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나) 生産·流通 支援事業

동일 과종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시설등 공동시설을 지원하며,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시설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조직 중심의 생산·유통 체계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花 卉

(가) 安定生産基盤 造成

지대별 적정작목을 선정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절화·분화등 품목별 생산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출하등을 자율조정토록 유도하며, 현대화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일괄지원하는 화훼생산유통단지를 2004년까지 23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 流通改善

대도시 법정 도매시장(공판장)을 확대 설치하고, 양재동 화훼공판장 출하량 확대 등 운영을 활성화하며, 규격출하품 포장재 지원등 규격출하를 확대하고 화훼공판장에 유통정보실을 설치·운영하는등 유통정보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한다.

(다) 輸出團地 육성

화훼 생산·유통 지원단지중 수출유망작목 재배단지 53개소를 2004년까지 수출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출하조절자금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3. 畜産業

가. 韓牛産業

(1) 韓牛 專業農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일정수준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전업농 육성을 위해 한우 사육농가,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및 축협조합등 한우사육에 필요한 입지를 확보한 경영주체에게 목로등 사육기반 시설, 축사등 사육시설, 초지조성등 조사료 생산기반 및 장비등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도기관, 축협 등 생산자단체는 소관별로 이들 경영주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실시한다. 개인은 1인당 2억원,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축협은 400%)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96년에는 2,353개소를 대상으로 674억원을 지원하였다.

(2) 韓牛改良事業의 강화

풀 자원이 풍부한 산간오지의 소득수준이 낮은 면단위 지역으로서 한우 암소 사육비율이 높고 300두이상 기초등록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젖소 및 비육우 사육 확대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우개량단지를 지정, 종모우 계획교배, 우량 암소 기반 구축, 참여농가에 대한 사료바 지원, 관리조합에 대한 관리비용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에는 250개소에 대해 7,44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95년부터 개량단지밖의 농가중에서 한우암소를 1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개량농가를 지정하여 한우개량사업에 참여시키므로써, 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한우 23두를 보증종모우로 선발하여 우수한 한우 정액을 생산, 공급하므로써, 한우개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96년도에 8,07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축산기술연구소, 도 종축장, 축협, 종축개량협회등 가축개량기관간에 전산망을 연결하여 개량정보의 신속한 수집, 분석, 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6년도에 69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3) 소 需給管理 電算化 추진

한육우·젖소 사육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귀표를 장착하여 전산입력,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96년에는 1,180천두를 대상으로 120억원을 지원하였다.

(4) 韓牛 專門販賣店을 확대 설치하여 輸入肉과 差別化

지정 한우고기전문판매점에서 냉장육을 판매토록 하여 국내 육류 유통을 냉장육체계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하며, 쇠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에도 한우고기의 안정적인 판매장소로 육성하기 위해 '99년까지 7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축협중앙회 등은 대규모 매장을, 축협조합·일반 식육판매점 등은 소규모 매장을 설치토록 하고, '96년에는 105개소에 대해 225억원을 사업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다.

나. 酪農產業

(1) 專業農 지원을 강화하고 우량 젖소 보급 확대

낙농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 및 사육시설의 자동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지원등 낙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농가 1인당 2억원, 법인은 자본금의 200%(축협등 공공기관은 400%)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96 지원계획 : 2,040개소(농가 1,978, 법인체 23, 협업체 39), 927억원
산유능력검정을 확대하고 국내산 보증종모우 선발 확대로 우량 정액 보급을 확대하며, 수정란 이식등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96년도에 4,67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 專門的인 헬퍼요원 육성지원으로 效率的인 酪農經營 유도

생산자단체인 축(낙)협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헬퍼요원이 낙농농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기간(1~3일간)동안 목장관리를

대행토록 하고, 헬퍼요원의 인건비, 지도차량 구입 및 착유시설 점검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6년에는 14개조합에 79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3) 牛乳의 品質向上을 통한 消費擴大 유도

우유의 위생·품질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원유가격 산정에 미국·캐나다 수준의 체세포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원유 세균수 기준도 최하위 등급을 종전의 mℓ당 100만개 이상에서 50만개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 養豚産業

(1) 專業農 育成 지원

개방화시대에 공격적 양돈산업을 이끌어 갈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등 사육시설·장비등 양돈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 '96 지원계획 : 2,079개소(농가 2,054, 조합 7, 영농조합법인·협업체 18), 1,670억원

(2) 專門 種豚業 육성 및 優良種豚 보급

'96년부터는 원종돈과 종돈을 계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질병근절을 도모하여 우량 종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종돈업체 3개그룹에 대해 77억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다.

우량 종돈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96년도에 돼지능력검정소의 시설·장비 자동화등에 161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검정소 검정을 내실화하는 한편, 위생 및 방역관리 우수농장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3) 國內豚肉의 브랜드화 등 品質改善 추진

축협,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를 대상으로 단지구성 농가, 자체 종돈장의 사육시설, 도축, 가공장 등 시설개선 자금지원 및 일정규격 이상의 위생적인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생산자재를 지원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유통활성화 자금과 국내 시판 돈육의 브랜드화 및 직판장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96 지원계획 : 가공직판장 7,850백만원, 돼지고기 품질개선 10,800백만원, 규격돈 지원자금 16,600백만원

라. 養鷄產業

(1) 專業農 육성 지원과 닭 改良事業의 추진

기술집약적 산업인 양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양계산업의 주축이 될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등 사육시설·장비등을 종합지원하였다.

- '96 지원계획 : 728개소(농가 718, 법인체 9, 조합 1), 765억원

검정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경제검정능력을 활성화하여 농가에 우량계종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검정규모를 확대하며,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로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96년도에 검정소 1개소에 대해 23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 鷄卵 加工施設 지원으로 附加價値 제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도계시설, 부산물 처리시설 등을 현대화하며, 계란가공시설 지원 등 가공산

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96년에 도계장시설 현대화 자금을 3개소에 1,700백만원, 도계부산물 처리시설 자금을 6개소에 1,710백만원, 계란 가공시설 자금을 3개소에 5,320백만원 지원하였다.

마. 畜産物 流通改善

(1) 畜産物綜合處理場을 2000년까지 10개소 설치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 설치를 목표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 돼지를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고품질 육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1개소당 처리능력은 1일 소 100두, 돼지 1,500~2,000두 정도로서 '96년에는 5개소(기존 3, 신규 2)를 대상으로 12,34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 肉類 屠體等級制를 실시하고 食肉處理技術教育을 강화

도축, 소매단계에서 육질에 따른 차등가격거래제 정착을 위해 육류 도체등급제 실시지역을 '96. 9월부터 전국 71개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식육처리 종사자들의 직업의식 고취를 위하여 식육처리 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96년 2,014백만원을 지원하여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건립중에 있으며, '96년에는 451백만원을 지원하여 180명을 대상으로 식육처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바. 飼料産業의 競爭力 제고 및 粗飼料 생산 지원

(1) 飼料 品質管理 강화

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료공정규격을 개정하였고, 사료내 잔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허용기준을 제정하는 등 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새로운 사료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사료내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위하여 사료검정·연구기관 2개소에 633백만원의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였다.

(2) 飼料 生産基盤 조성 등 粗飼料 생산을 적극 지원

신규 초지조성이 어려우므로 기성초지 보완 및 사료작물 재배에 중점 지원하고, 영세토지의 분합, 용수원 개발, 목장도로 건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생산기반을 개선하며, 소사육이 단지화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계 공동이용단지를 조성하고, 볏짚 수거용 기계 보급과 볏짚의 암모니아처리 이용으로 사료 영양가치를 증진시켜 볏짚을 최대한 활용한다.

사. 畜産糞尿의 資源化

가축분뇨를 자원화함으로써 축산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환경보전형 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액비화, 퇴비화등 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 분뇨처리지원 예산 확대 : ('94년) 860억원→('95) 1,095→('96) 1,182

4. 水産業

가. 沿近海漁業

(1) 沿近海漁業 構造調整事業 추진

연근해어업은 어선세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 및 어업인력의 감소, 어선 노후화 등 많은 내부문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 어장 축소 및 해양오염 심화 등 어려운 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의 구조적 문제와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개방경제하에서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연근해어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어선감척을 위주로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계획을 '93년도에 수립하였으며,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대비, '94년부터 2004년까지 5,2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업종중 치어혼획율이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과 수입 자유화로 국제경쟁력이 낮은 업종, EEZ 선포시 어장 축소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업종, 적정 어획강도 초과 비율 및 노후어선 비율이 높은 업종, 어업경영 상태가 불량한 업종, 어업 구조조정이 용이하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업종 등의 어선 137천톤(7,300여척)을 감척코자 하는 것으로, '96년도에도 '95년도에 이어 15,611백만원의 정부예산으로 연안수역에서 세망을 사용, 어린 고기를 많이 혼획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어업으로서 수산물 수입 개방시 경쟁력이 취약한

연안어업 3개 업종 (해선망, 낭장망, 연안안강망)과 근해어업중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큰 대형선망, 대형트롤, 잠수기어업에 대하여 감척을 추진중에 있다.

(2) 周邊水域 資源 保護 및 管理 強化

'94. 11. 16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는 인접국인 중국, 일본과 경쟁적 조업으로 인한 자원의 남획 방지가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해양질서에 따른 공동자원 관리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의 이행 및 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여 주변 인접국과 자원공동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어업자원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확대 실시와 연안어장 보전을 위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어업자원 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 인공어초시설 확대 실시 : ('95까지) 100천ha → ('96계획) 19천ha
- 수산종묘배양장 증설 : ('95까지) 12개소 → ('96계획) 5개소
- 어장정화사업 추진 : ('95까지) 173천ha → ('96계획) 49천ha
- 어장정화선 건조 운영 : ('95까지) 2선단 7척
- 연안 시도·시군, 어촌계별로 바다청소 책임구역제 실시

불법어업의 지속적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에 「불법어업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

로 어업인 의식을 계도하고 미등록·무허가 어선의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합법어업으로 전업 가능토록 하고 '96년부터 전업자금 100억원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3) 漁撈施設의 現代化

'96년도 어선건조 지원사업은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사업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이를 8톤미만(종전, 노후어선대체사업), 8톤이상(종전, 경제성 어선건조사업), 표준어선형 ('96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40톤미만은 합성수지(FRP)어선으로 40톤이상은 합성수지(FRP)어선 또는 강선으로 건조지원하고 있으며, 8톤미만사업은 119억원을 투자하여 1,809톤, 8톤이상사업은 194억원을 투자하여 2,936톤,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은 27억원을 투입하여 128톤의 노후어선을 건조지원하고 있다.

안전조업과 조업 능률 향상으로 생산 증대는 물론 연료 절약을 위하여 연료 과다소모형 저효율기관과 노후기관을 성능이 우수한 연료절약형 선박용기관으로 대체하도록 지원하는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500마력이하 선박용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96년도에 57억원을 지원하여 35천마력을 대체할 계획이며 영세 어업인과 다수어업인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형어선의 저마력기관 대체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

나. 海面養殖漁業

(1) 高所得 養殖 品種 개발 및 漁村契 所得源 개발

양식어장 개발은 어장 이용개발 기본지침을 수립, 각시·도와 국립수산진흥원, 수협중앙회에 시달하여 연안양식 어장 개발을 지선 다수어업인의 소득원 확보 위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어장의 어장여건 변화로 계속 양식이 곤란할 때에는 외연어장으로 대체 개발하여 적정품종으로 변경 개발하는 등 어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양식 수산물의 수요를 감안한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 수급 조정이 필요한 김, 미역, 굴, 피조개, 톳 등은 안정생산 시책을 추진하여 전국단위로 어장 개발 및 생산을 조정하였다.

이와함께 해역별 양식어업의 주요 품종으로서 남해안은 어류, 굴, 피조개, 김, 미역, 우렁쟁이, 진주조개 등; 서해안은 김, 바지락, 굴(투석식), 새우 등을, 동해안은 어류, 우렁쟁이, 가리비 등의 어장을 개발하고, 수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비하여 가리비, 진주조개, 어류양식 등 국제경쟁 우위품종을 중점 개발하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양식 품종은 타 품종으로 변경을 유도함과 아울러, 양식여건이 좋은 동남아 등과 해외합작에 의한 해외 어장 개발을 병행 추진중에 있다.

(2) 養殖漁場 정비 및 漁場 環境 개선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실관리 어장의 방지를 위하여 「'96 양식어장 관리개선지침」을 각시·도 및 유관 기관에 시달하고, 양식어업권을 품종별, 양식 시기별로 구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리 어업권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 조치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어장의 생

산성을 감안한 어장별 적정시설 지도와 함께 도, 시·군, 수산진흥원, 수협 합동으로 지역별 주요양식 품종별 생산단지에 대한 어장예찰 평가제를 강화하여 피해예방 지도와 피해발생시 신속 대처로 효율적인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다. 內水面漁業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가두리양식장을 육상으로 이설코자 가두리양식장 육상이전 및 담수어 양식장 시설자금을 '95년도에 17개소에 4,9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7,500백만원을 확보하여 19개소에 대해 토산품종 및 고소득품종 집약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담수어 소비의 저변 확대 및 유통단계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담수어 주생산단지와 소비도시에 담수어 유통(직매장) 시설을 '95년도까지 7개소(3,214백만원)에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2개소에 1,000백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토록 하고 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 및 양식 농어가 부담 경감, 양식시설 기계화 촉진으로 수산물 생산 증대 및 양식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자재등 양식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양식용기계 반값 공급 정책에 따라 '95년도까지 2,630대(3,130백만원)를 지원한데 이어 '96년도에는 834대(1,001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식시설이 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라. 遠洋漁業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도에 처음으로 인도양에 진출한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우리나라 총 수산물 생산량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85%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나 '90년대 들어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물기구의 공해조업 규제조치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과 베링공해, 북대서양수산물기구 (NATO) 수역 등의 주요어장이 상실되고,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91년 이후 116개사가 부도, 도산 및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한편, 국내 수산물의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연근해어업은 연안어장의 오염과 남획 등으로 자원의 감소 및 정체상태에 있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는 한계상태에 와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한 국내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97년도 수산물 수입의 완전개방화에 대비한 수입대체산업으로서, 또한 외화가득률이 높은 수출산업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대내외적인 어업 여건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원양출어자금을 '95년도 2,050억원에서 '96년도에는 2,650억원으로 늘려 지원함으로써 자금 압박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며, 원양자원의 보유국인 주요 연안국과의 어업협정의 체결 등 어업교섭 강화와 합작 공동어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저개발국가와는 자본 기술협력의 강화 등 다각적인 어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여 해외어장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선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병역특례 범위의 확대와 아울러 국제어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양어업의 조업수역을 대양별로 확대하고, 기존 허가척수 범위내에서 조업수역 및 업종간 전업을 허용하는 등 원양어업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원양어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기존 원양어선의 대체용 어선에 대하여 선령, 톤급에 제한없이 기간용선이 가능하게 하고 또한 타인에 대한 승계자격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양어업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경제성있는 해외어장 및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96년도에는 인도양 고위도어장의 남부참다랑어를 확대 개발하고 남빙양어장의 다양한 어종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합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96년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특정물품 감면세를 적용함으로써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5. 林 業

가. 山地의 資源化

(1) 經濟林 造成

지역 산지 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육림을 추진하고자 자원 가치가 낮은 불량림을 경제수종으로 개량하고 현존 산림의 기술적 관리와 육림을 확대하여 경제림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다.

- '96 조림:23천ha 육림:234천ha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채종원 및 채종림을 '96년까지 2,226ha로 확대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포지의 단지화와 기계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2) 專門人力 육성 및 技術開發 보급

산림의 기술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기술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훈련된 기능인력으로 기능인 영림단을 조직('96까지:293단)하여 산림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임업기술 경영인 양성을 위해 『한국임업전문학교』설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임업기계훈련원을 현장 산림경영 기술자 양성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첨단 임업기술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자 새로운 조림기술과 생태적 육림방법등 산림사업의 생력화 연구를 확대하고, 생물공학기법을 이용한 항암제 “택솔”의 실용화와 육종 및 유전자기법을 이용한 썩는 플라스틱 생산수종, 무공해 천연방부제, 액화목

재, 방향제등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제품과 신품종의 개발·보급을 위한 첨단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최신 임업기술을 집대성하여 산림사업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임업기술편람』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3) 資源化·基盤 확충

임도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주요 산 또는 권역별로 『간선임도』 위주로 집중시설하고 ('96까지:10,616km→2010:56,000km), 현지여건을 고려한 실질공정을 반영하고, 설계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며 시공단비를 현실화(국유임도 84백만원/km, 민유임도 57백만원/km)하는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임업기계화 기본계획('96~2005)에 따라 우리 산지 여건에 알맞는 기계개발 보급을 추진하고,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기계장비 보급을 확대하였으며, 임업 기계장비 실연대회를 개최하여 기계활용기술을 보급하였으며, 「'96서울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나. 林業의 産業化

(1) 私有林 經營 활성화

임업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독립가·임업후계자에게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배정하는 등 산림사업비를 종합지원하고, 경영촉진을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감면을 추진하여 기술적 산림관리를 위한 국내외 선진 임업연수를 확대하고 있다.

사유림 협업체를 '96년까지 217개 육성하고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작업과 공동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협업 기술지도원을 고정배치하여 경영을 책임지도하고 있으며, 표고, 조경수, 산채등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단기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경영활성화를 위한 임야매매증명발급 및 임산물반출 검인제도를 폐지하는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업진흥기금 설치, 대리경영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업진흥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國有林 經營 개선

규제 보호위주의 영림서 조직을 「지방산림관리청」으로 개편하여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총 118개 경영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에 새로운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한국미래임업의 교육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강원도 홍천·평창지역 24,480ha에 산림경영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선진임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목재자원 확보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국유림률을 '95년 21%에서 2020년 30%로 확대할 계획이고,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부실 대부지를 정리하는등 대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3) 林產物 生産 利用·加工

국산재의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간벌·소경재 수집과 수송장비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목재

가공 이용시설의 현대화 및 원자재 구입자금 252억원을 지원하며, 목재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집하장등 유통시설을 '96년까지 76개소로 확대설치하고, 경기도 여주에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산지수집·저장·가공·판매등 임산물 종합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단기소득 임산물을 개발 지원하고자 밤·표고등의 주산단지와 생산자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조경수 분재를 농산촌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 있다.

다. 山林의 公益化

(1) 맑은 물·깨끗한 공기 供給基盤 확충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숲의 구조를 개선하고 육림사업을 확대하여 함수기능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원함양 효과가 많은 활엽수로 수종을 개량하고 기술적 육림으로 울폐된 산림의 물 저장능력을 증대시키고 있고, 5대강 유역 산림 1,159천ha를 특별관리하고 있다.

환경림과 공해방지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환경림 조성계획('95~2004)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군식·복층림·혼효림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숲, 생명의 숲, 명산가꾸기등 지역특색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 山林 休養施設 확충

최근 늘어나는 국민의 야외 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림휴양시설을 확대 조성 하고 있다. 먼저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 '96년까지 61개소의 휴양림을 조성하고 도시근교에는 20개소의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다.

휴양공간 조성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보존형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경관을 유지하고, 환경친화적 시설로 국민정서를 순화하며, 국민친화적 운영으로 건전한 휴양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휴양림내에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3) 山村開發

산촌은 국토의 40%를 차지하는 생활공간이나 공동화·노령화 현상이 나타내고 있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소득을 증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촌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사업으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진입도로와 상수도를 시설하고, 주택을 신개축하며 산림자원을 이용한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산촌주민을 산림경영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영림단을 구성하여 주변 산림을 경영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95~'96에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97년부터 산촌개발사업을 본격추진하여 2004까지 150개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4) 野生 動·植物 보호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수보호구역(144천ha)을 성역화하고, 수렵시험 면허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며 불법포획 등에 대한 형량 및 벌칙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법 교역물품을 몰수하고 형사처벌하며 「야생조수 애호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황새 복원, 산양 방사, 특산식물 보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라. 山林의 效率的 利用 管理

현행 경사도등에 의하여 구분된 보전·준보전임지의 이용체계를 기능과 이용 목적에 따라 생산·공익·준보전임지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금까지 산지이용 구분조사 및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의 산지이용수요를 파악하여 산림이용기본도(안)을 작성하고 시·군단위로 현지확인을 거쳤으며, '96년말까지 산림이용기본도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산지이용체계 재편후에 생산임지는 임업생산기능을 증진시켜 목재 생산공급 기지화하며, 공익임지는 환경기능이 증진되도록 관리하여 나가고, 산지의 타용도 전용은 국토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준보전임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산지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산지

개발기준 등을 정립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마. 林業의 世界化

(1) 林產物 輸出入

'96. 9월말 현재 임산물 수출은 241백만불로 주 수출품목은 밤, 송이, 석재, 목제품등이며, 수입은 2,068백만불로 주 수입품목은 원목, 제재목, 합판등이다. 수출진흥대책으로는 밤, 송이, 표고등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자금을 확대 지원(310억원)하고, 밤 박피기 개발과 표고 재배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제고하며,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대상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수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고, 고사리등 수입금지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를 인상 적용하고, 수입원산지 표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국내 임산물을 보호하고 있다.

(2) 海外山林 開發

자원보유국의 수출규제에 대비하고, 목재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지개발과 해외조림을 2040년까지 각각 700천ha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업체에 대한 조림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출대상국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사 연구하여 결과를 관련업체에 전파하고 있다.

(3) 國際協力 강화

구속력있는 협약이 제정될 경우 각국의 목재수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격급등 및 수급에로등 산림정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계전문가를 국제회의에 파견, 동향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내자원의 육성과 산림자원의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산림협회의 국내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간 임업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보장과 교류 확대를 위한 『임업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중, 한·인니 임업협력회의, 한·일, 한·러 철새보호협력회의, 동북아환경협력 공동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개도국에 우리 임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등 산림공무원을 초청하여 '96까지 8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 단기 연수를 확대 추진하여 자원보유국과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IV. 農漁村 生活環境 改善 및 福祉增進 施策

1. 다양한 所得源 開發

가. 農工團地 造成으로 農漁村 地域의 雇用擴大 도모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농어촌지역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을 '96. 5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5년말까지 276개소(12,314천평)를 지정, 운영 또는 조성중에 있다.

나. 農漁村 特産團地 造成으로 所得增大에 기여

농어촌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상품성있는 지역특산품의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95년까지 1,497억원을 지원하여 597개소를 조성하였으며, '96년도에는 103억원을 지원하여 70개소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 農漁村 休養資源 개발

농어촌 관광 부존자원을 활용·개발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농원과 휴양단지, 민박마을 등을 개발·육성할 계획으로 '95년까지 853억원을 지원하여 418개소를 조성하였으며, '96년에는 242억원을 지원하여 101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고 있다.

라. 限界農地 개발 추진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다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92년부터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4. 12월 농어촌정비법을 제정, '95. 6월 시행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96년도에는 3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2. 基礎 生活環境 改善

가. 現代的 生活環境을 갖춘 문화마을 조성

면 지역의 중심마을에 마을기반시설, 주택신축, 복지·문화 및 환경보전 시설등을 갖추어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가면서 생산기반, 유통, 가공시설 사업과도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51개 지구를 착수하였으며 '96년에는 21개지구를 신규착수하여 846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나. 老後·不良住宅 개량을 위해 10년간 5조 4,000억원 지원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만호씩 50만호를 대상으로 총 5조 4,000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을 통하여 주택신축은 호당 1,600~2,000만원이내, 년리 5.0~5.5%,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고, 주택개량은 호당 280만원, 년리 3%, 3년거치 7년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6년에는 주택신축 3만여호, 주택개량 15천여호에 5,1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 農漁村道路의 지속적인 확대

낙후된 농어촌의 도로를 대폭 확충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농특세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농어촌 도로 포장율을 '95년 현재 25%에서 2004년에는 51%까지 높여나갈 계획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1단계로 9,336억원을 들여 3,469km, '97년부터 2004년까지 3조 5,070억원을 들여 13,853km를 확·포장할 계획이다.

〈농특세 생활여건 개선분야 사업내용〉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관부처	총 소요액	'94	'95	'96	'97 이후	재원조달
○ 농 어 촌 도 로	내무부	12,000	650	1,200	1,200	8,950	○ 지방양여금 전출 지원
○ 농 어 촌 주 택	"	8,000	400	800	800	6,000	○ 국민주택기금 전출 지원
○ 농어촌생활용수		12,000	400	1,200	1,200	9,200	
- 암 반 지 하 수	농림부		130	800	800		- 농특회계및지방교부세
- 지 방 상 수 도	환경부		270	400	400		- 농특세관리특별회계
○ 농어촌하수처리 사 업		7,000	-	800	750	5,450	
- 마 을 하 수 도 정 비	내무부	5,000	-	450	413	3,850	- 지방양여금 전출 지원
- 면단위하수도 정 비	환경부		-	150	137		-
- 오 염 소 하 천 정 비	내무부	2,000	-	200	200	1,600	○ 지방양여금 전출 지원
○ 농 어 촌 폐 기 물 종 합 처 리 설 비 지 원	환경부	2,040	-	225	225	1,590	○ 농특세관리특별회계
계		41,040	1,450	4,225	4,175	31,190	

라. 農漁村 生活用水 改善 事業

농림부에서는 우물 및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마을등을 대상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96년에는 800억원을 지원하여 '95년도에 개발한 암반관정 999개소중 800개소에 대한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100개소를 새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215개 면지역에 대하여 2004년까지 도시수준의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95년까지 31개 사업중 2개소를 완료하고 29개소는 설치중이며, '96년에는 36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마. 下水處理 등 環境改善事業

농어촌의 생활하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는 '96년도에 194개 마을에 대하여 413억원을 지원하여 마을 하수도 정비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27개 면 단위 하수도 정비에 13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전 및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내무부에서는 '95년도에 132km를 정비하였으며 '96년에는 578억원을 투입하여 130km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을 2004년까지 78개군에 설치할 계획으로 '95사업지역 15개소중 2개사업을 완료하고, 13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96년에 15개소를 신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상수원 및 하천 주변에 밀집한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 44개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중에 있다.

3. 教育與件 改善

가. 農漁村學生 大學入學 기회 확대

(1) 農漁村學生 특별전형을 '96 大入부터 시행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촌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로 하고, '95. 6. 17 교육법시행령과 대학학생정원령을 개정하여 '96대입부터 시행하고 있다.

'96년도 실시 대학은 일반대 113개교, 개방대 13, 전문대 139 등 총 265개교이며, 모집정원 9,562명의 91.5%인 8,750명이 합격하였다.

이 제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법시행령('96. 8. 23) 및 대학학생정원령('96. 9. 30)을 개정하여 현행 입학정원의 2%내에서 선발토록 되어있는 것을 3% 이내로 확대 실시하고 재학중에 행정구역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변경된 학생도 특례입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農漁村地域에 專門大學 설립

농어촌지역의 전문대학 설립요구 및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기존 고교를 개편, 8개 공립전문대학을 설립하기로 하고, 거창·남해 전문대학은 '96년에 개교하였고, 예천 전문대학은 '97년에, 주문진·옥천·청양·담양·장흥 지역은 '98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나. 農業人等 자녀 教育費 負擔 輕減

(1) 公立學校 授業料, 入學金 免除 범위 확대

농어촌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94. 8월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읍·면, 도서·벽지 소재 공립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범위를 15%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零細農漁家 子女 學資金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 1ha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경종 농어가의 자녀중 전국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 사업을 '89. 4. 28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96년도에는 90천명을 대상으로 51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3) 自營農科生 給食費 지원

핵심 농업인등 후계 세대 육성, 자영농과생의 기숙사 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 고취, 농업인 등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85. 2. 21 지원계획을 확정, '8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1,193명에게 13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4) 새마을 獎學金 지원

농업계고교 재학생중 자영학과생 전원과 일반농과생 중 영농학생이나 4-H회원을 우선 선발,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2,500명에게 4억원(1인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96년도 농업인 등의 자녀교육 지원계획〉

구	분	실업계고교생	새마을장학기금	급 식 비
인	원	90천명	2,500명	1,193명
금	액	511억원	4억원	134백만원

다. 農漁村出身 大學生 學資金 용자

기존 대학생 학자금 용자사업과 병행하여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2,1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학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용자해 주고 있으며, 용자금의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후 1년이 경과된 다음달 부터 용자받은 기간의 2배기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등상환 하도록 하고, '96년에는 2만명에 대하여 2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라. 農漁村 出身 學生 寄宿舍 건립

문화체육부에서는 농어촌출신 도시 유학생 숙식비 절감, 면학 분위기 조성과 농업인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방 도시지역에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위한 기숙사를 '95년부터 2000년까지 9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건립규모는 연평균 2,000평 규모로 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관, 편의시설(도서실, 식당 등), 체육시설(체력 단련실, 농구장 등)도 마련하여 농어촌출신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할 계획이다.

'96년도에는 충북 청주, 경북 경산, 광주, 전북 전주등 네 곳을 선정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98년이후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 農漁村地域 公共圖書館 건립 운영

농어촌 주민의 문화이용공간 확충 및 건전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940억원을 투자하여 100관의 공공도서관을 농어촌 지역에 건립하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96년에는 9개 도서관에 건립비를 각 10억원씩 90억원을 지원하고, 도서 구입비로 160관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4. 農漁村地域 國民年金 實施

가. 農業人등의 老後所得保障을 위한 제도 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농업인 등의 노후 생계보장과 노령농업인 등의 은퇴보장제도로서 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내에 국민연금을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94. 6월 농어민연금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95.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95. 7. 1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나. 農業人等 1,841천명 加入

'96년 9월말 현재 농업인등 1,441천명, 비농업인 400천명 등 1,841천명이 가입하여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에 대한 농업인등의 호응이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 급여체계 등 적용방식은 현행 국민연금체계를 유지하되 농업인 등 자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당시 60세이상 65세 미만의 농업인등에게도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농업인 등에 한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인 2,2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의 경우 '95. 7월부터 5년간은 표준소득월액의 3%를, 2000년 7월부터 5년간은 6%를 적용하고 2005년 7월이후 부터는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 保險料 納付 便宜制度 마련

농어촌의 소득이 수확기 등 재배작물의 성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분기별 납부제도』, 12개월분 보험료 범위내에서 가입자 본인이 희망하는 개월분만큼 선납하는 경우 일정할인율(1년만기 정기에금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하여 주는 『선납할인제도』, 가입자가 군입대, 재난,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보시켜 주는 『납부예외제도』등 보험료 납부편의제도를 마련하였다.

라. 特例 老齡年金制의 대상을 農業人등에 한하여 65세미만까지 확대

급여관리는 현행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가입자 사망당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을 받지 못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의 死亡一時金を 지급하는 『死亡一時金制度』를 신설하고 '95. 7월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대상인 특례노령연금제를 농업인등에게는 예외적으로 65세미만까지 확대하여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醫療與件 改善

가. 醫療保險制度的 改善

(1) 現 制度上의 問題點을 改善하여 醫療保險料 負擔 輕減

소득의 형태, 소득과악율, 의료이용율이 유사한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현 제도는 조합간에 인구구성 등 위험요인이 달라 조합간 재정력 격차 발생, 일부 소규모 조합의 경우 위험분산 기능이나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미흡하여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고, 퇴직,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경우 조합간 자격관리가 연계되지 않아 누락자 및 이중자격자가 생기는 문제등이 있다.

현행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어촌조합의 재정 안정화 및 농어업인의 의료보험료 부담경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96년 농어촌조합은 지역주민 1인당 매월 1,960원씩 정액지원하는 이외에 국고차등지원 611억원, 노인의료비 516억원, 고액진료비 419억원등 총 1,546억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발생하여 농어촌조합당 11억원, 1인당 26,000원의 지원효과가 있게 된다.

(2) 國庫差等支援 比率의 연차적 확대

도시와 농어촌지역 조합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국고지원 방식을 시·군별 소득수준과 인구비율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국고차등지원제도를 실시하여 '94년 국고 지원 총액의 3.3%에서 '95년 10%까지 확대하고, '96년에는 18%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3) 老人 醫療費 共同負擔事業 실시

농어촌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급여비 전액을 직장조합, 공·교조합 등 모든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부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高額診療費 共同負擔事業 擴大 실시

현행 건당 12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를 모든 조합이 공동부담 하는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및 고액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조합의 부담율 상한을 '96년부터는 보험료 수입의 20%에서 25%로 인상하여 실시하고 있다.

(5) 健康診斷 실시 및 給與期間 延長

농업인등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험급여 확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40세이상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95년부터 당뇨, 고혈압, 간기능장애 등 성인병에 대해서 격년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연간 210일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급여기간을 '96년에 240일로 연장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30일씩 연장하여 2000년에는 급여기간 제한없이 연중 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 農漁村 醫療서비스 개선

(1) 綜合的인 農漁村 醫療서비스의 質 향상

농어촌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농어촌 수진율이 증가함으로써 농어촌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지만 의료자원의 도시지역 편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 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적인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農漁村 醫療 供給基盤 擴充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농어촌 군단위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및 산하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진료기능 보강을 위한 진료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4추경	'95예산	'96	'97예정
계	201	801	818	769
○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201	401	418	429
○ 민간의료기관 금융지원	—	400	400	340

(3) 訪問 保健事業의 活性化

산간오지·벽지등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의 진료기능강화 및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物理治療室 設置 확대 및 公衆保健 韓醫師 制度 도입

전국 244개 보건소중 '96. 7. 1 현재 176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으며 '98년까지 우선적으로 농어촌과 통합시 지역을 포함한 136개소에 이를 설치하고 2000년까지는 전 보건소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중보건한의사 제도의 실시를 위해 '97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농 복합형시를 포함한 군지역 보건소 136개소에 한방진료실을 중·개축할 계획이며, 공중보건 한의사는 '98년부터 매년 60명씩 3년간 18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

V. 農林水産事業 中間 評價

1. 中間評價 概要

가. 中間評價의 必要性

'92년에 착수한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94. 6월 확정·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한 중간점검 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보완함으로써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였다.

나. 評價期間 : '96. 2. 8 ~ '96. 6. 30

다. 評價方法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평가 병행

— 외부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을 분야별 팀장으로 13개팀 구성
- 관련문헌·자료조사 및 설문조사와 면접청취조사 실시
- 농어촌발전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농어촌발전대책의 기본취지와 목표가 투융자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점검
- 3회의 현지조사와 팀별 1회의 간담회 개최

— 내부평가

각 사업국의 자체평가 및 토론회를 거쳐 내·외부 평가 결과 검토 및 외부평가팀과 토론

라. 評價對象

'92년부터 추진한 42조 구조개선 사업중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업과 15조 농특세 사업을 포함하여 '94년부터 추진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農林水産 産業構造의 變化

가. 經營規模 및 人力構造의 變化

영농형태가 쌀·전작 중심에서 고소득 작목중심으로 변화하여 쌀 전작농가는 감소하고 축산·원예 등을 중심으로 상업적 영농이 늘어나는 한편,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90년 1.19ha에서 '95년 1.32ha로 늘어나는 등 영농규모도 확대되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영농의 규모화가 진척되고, 농가경영주의 학력수준이 규모화된 농가에서 급속히 향상되었다.

— 고졸이상 경영주 농가수 : ('90) 230천호 → ('95)242천호

나. 農業生産基盤의 擴充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안정 영농 및 기계화 경영기반이 구축되어 토지생산성이 향상되었다.

— 경지정리율 : ('90) 64 → ('95)76%

— 토지생산성 : ('90)625 → ('95)929천원/10a

다. 流通 加工 部門의 變化

품질인증제와 안전성 검사를 통해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산물의 수집·가공·포장·출하 등을 위한 유통거점이 자리잡아 유통구조개혁이 본격화되었다.

가공·유통 등에 직접 참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늘어나 농업의 2·3차 복합산업화가 촉진되고, 전통식품의 수출 또한 본격화되었다.

— 전통식품 수출액/농림수산물 수출액 : ('93)7.1% → ('95)8.7%

라. 農業의 機械化와 尖端農業技術의 實用化

인공씨감자 생산기술 등 첨단기술의 실용화와 병충해 동시 방제용혼합제 개발 등 환경조화형 농업기술개발로 농업노동력이 절감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었다.

마. 輸出의 增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농·수·축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시장도 일본, 미국 중심에서 러시아, 중국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 농림수산물 수출액 : ('90)2,920 → ('95)3,469백만불

— 수출비중 : ('90) 일본 56.5%, 미국 7.9%, 홍콩 5.9% → ('95)
일본 61.3%, 미국 5.4%, 홍콩 6.6%, 러시아 4.3%,
중국 4.6%

바. 農家經濟의 호전과 生活與件의 개선

'95년 농가소득이 21,803천원으로 '90년의 11,026천원 대비 2배로 늘어나 1인당 GNP 성장속도(1.7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채무구조도 생산성 부채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건전화되고 있다.

- 생산성 부채 점유비 : ('90)66.5% → ('95)80.0%

농어촌도로 포장, 상수도 보급,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활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문화생활욕구 증대로 전자제품 등의 기초적 문화시설에 대한 소비단계를 넘어 자동차 소비단계로 진입되고 있다.

- 자동차 보유대수 : ('90)5.0대/100호 → ('95)29.6(3호당 1대꼴)

사. 農漁村人口의 減少趨勢 屯화와 非農業人의 農業經營參與

농어업인 소득수준 향상,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농가인구의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감소형태도 농촌에 거주하여 전업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농업경영의 vision이 생겨 새로운 경영안목을 가진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 '92년 이후 2,800여 가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농업경영체로 정착('96. 6월 현재)

3. 制度改革의 定着

가. 農地制度 改革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소유제도를 정립하는 등 농지소유자격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우수인력 및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법인체의 영농참여를 촉진 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은퇴, 비농가 또는 전업 농가로부터 농지매수 또는 장기임대차 제도를 도입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농지이용규제완화에 따른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 및 불성실 영농증가나 투기목적의 농지소유 가능성이 있어 농지 전체에 대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비농업 부문의 토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가능한 산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 糧政制度 改革

쌀 유통에 있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추진하여 쌀값 계절진폭이 3~4% 수준에서 7~14%로 확대되어 생산농가가 시장에 판매할 경우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농협차액 지급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매입물량 확대로 정부재정부담이 축소되고 농가의 쌀 판로가 확보 되었다.

다. 協同組合 改革

지역조합을 2001년까지 500여개로 합병하여 사업의 규모화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95년 이후 8개조합 합병), 중앙회 조직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구분하여 전문경영체를 구축하였다.

전문조합 설립에 대한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전문경영인제와 복수조합원제를 도입하여 조합경영의 전문화와 여성을 포함한 젊고 유능한 영농인력의 조합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라. 農水產物 流通改革

상장매매제 실시, 산지수집상 등록제 실시 등 공정하고 투

명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공영 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등에 대한 지원으로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확보하여 생산자의 출하 선택폭을 확대 하였으며,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사업, 품질인증제,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를 통해 농산물 상품화를 제고시켰다.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신고만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세법을 개정하여 주류제조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관련 인허가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4. 投融資 事業의 課題

가. 精銳人力 育成

전업농 육성목표를 15만호에서 12만호로 수정, 수는 줄이고 경영규모는 늘려 경영체 경영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쌀 전업경영체는 육성목표 6만호중 5만호를 '97년까지 지정하여 농지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촉진토록 하였다.

법인경영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하여 정부지원 수혜목적의 난립을 예방하고, 우수 농기업에 대하여는 농기업 경영자금을 추가지원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나. 生産基盤 整備 및 規模化

경지정리 대상지를 재조사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밭 기반정비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대구획경지정리는 행정구역별 수계별로 일괄조사 설계방식을 도입하여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영농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차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부담경감을 위해 임대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고자 한다.

다. 農業機械化 및 施設現代化

'98년부터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중심으로 대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등 지역별·작목별 기계화 모델 및 농기계 적정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벼 건조작업 기계화율을 2004년까지 80%로 제고하는 한편, 현재의 농기계 공급중심 시책을 이용 및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채소, 화훼산업은 시설위주 지원에서 재배·경영기술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확대하고, 20ha이상의 과수주산지 생산자 조직에 우선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라. 農業技術 革新

기술개발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심사평가도 비밀서면평가와 공개발표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일반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방법을 개선하여 전문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며, 기술개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마. 農產物 流通改善 및 所得源 多樣化

주산단지의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거점시설에 중점지원하고 규격출하, 상표유통을 이행하는 우수 생산자조직에 우선 지원하며, 도매시장 등 소비지 유통시설은 시설투자 위주에서 효율적 운영과 물류 효율화에 중점을 두며, 투명한 상장거래 정착으

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지 가공산업 지원업체 운영실태를 카드화하여 사후관리 및 지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우수 경영업체에 대해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공단지 부지조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경영자금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장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단지의 내실화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 農村 生活環境 改善

주택개량사업 지원 차질로 농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농민에게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농촌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암반관정 개발과 이용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간 사업량을 적정하게 조정하며, 오염지표수 사용지역의 경우 농업용 지하수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 農業人 福祉增進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범위를 읍지역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및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을 확대하며,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해 일제가입신고기간 운영 및 효도연금 보내기 운동 등 홍보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5. 政策支援方式의 改革과 課題

가. 農林水産事業 推進體系의 改革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방식이 '94. 12월부터 농림수 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인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상향식 농정체제로 정착 되었으나, 사업 신청절차 등의 개선 필요성이 있어 경쟁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사업신청자를 제한하고, 자격을 갖춘 개별농어업인을 생산자단체 및 공동조직과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자율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사업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나. 政策資金 支援體系의 改革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한 예산제도를 대출기관인 농·수·축·임협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 편의위주로 개선하여 신용대출한도를 무보증은 1,000만원, 보증은 2,000만원까지 확대하였다.

향후 대출제도 및 농신보제도개선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등의 실시로 새로운 제도의 완전정착과 시행결과 미흡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각종 투융자 사업은 단위사업별 지원에서 경영체별로 종합지원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금의 부당사용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96. 6. 13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 록

부록 1

그동안의 農業構造改善 推進成果

1. 農業生産性과 附加價値의 安定的 成長

최근 5년간('90~'95)의 농업취업자의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6.9%로 '85~90년 평균 2.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림업의 부가가치증가율도 '85~'90년의 $\Delta 0.1\%$ 에서 '90~'95년 1.4%로 증가하는 등 농업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업자 1인당 생산성 증가율(연평균)>

	농림업	제조업	건설업
85~90 평균	2.3%	5.8	4.3
90~95 평균	6.9	8.7	0.2

2. 農産物 輸出의 基盤構築

신선채소, 축산물, 가공식품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신장되어 농림수산물 수출액이 '92년 2,888백만불에서 '95년에는 3,469백만불로 20.1% 증가하였으며 채소, 돼지고기, 김치 등 수출증가를 주도한 농축산물은 '92년 800백만불에서 '95년 1,242백만불로 수출이 55%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96년 9월 현재 농축산물 수출은 1,082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23.9% 증가되었다.

수출대상국 또한 '92년 130개국에서 '95년에 149개국으로 늘어나 수출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

3. 主要品目の 單位數量 增加와 生産費 節減

고품질·다수확 품종개발 등 기술혁신으로 단위당 수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마늘, 양파 등 특용작물의 段數가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작목의 단위당 생산량 변화>

(단위 : kg, 10a당)

	'84~'86 (A)	'89~'91 (B)	'93~'95 (C)		
			B/A	C/B	
쌀 보 리	233	263	12.9%	278	5.7%
고 추	137	206	50.4	213	3.4
마 늘	643	953	48.2	1,095	14.9
양 파	3,734	5,304	42.0	5,826	9.8
우 유	5.6	6.4	14.3	7.0	9.4
계 란	269	279	3.7	286	2.5

※ 우유는 착유두수당 톤이며, 계란은 산란두수당 갯수임.

또한 規模化·機械化 등으로 쌀·축산의 생산비가 크게 절감되고 있으며, 기계화가 어려운 과일등의 경우도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품목의 실질 생산비 변동추이 (1kg당)>

	'85 → '90	'90 → '95
쌀 생산비	19.6%	△18.4%
한우 비육우 경영비	35.5	△4.4
비육돈 경영비	△6.9	△27.5
마늘 경영비	△45.0	△42.7
가을배추 경영비	34.0	7.2
사과 경영비	37.9	19.3

4. 多樣한 專門 經營體의 育成과 營農規模化의 進展

법인경영체가 증가하고 기업형 영농이 출현하는 등 농업경영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전문경영체를 중심으로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5ha 이상 경영농가가 '90년 6.7천호에서 '95년에 15.7천호로 2.3배 증가하였으며, 돼지의 경우 호당 사육두수가 '90년 34두에서 '95년 135두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법인경영체의 경우 '95말 현재 농업회사법인이 1,179개소, 영농조합법인이 2,455개소 설립되었다.

- 법인 설립현황('95년말 기준)

(단위 : 개소)

연도	계	'91	'92	'93	'94	'95
농업회사법인	1,179	45	147	289	307	391
영농조합법인	2,455	29	57	229	1,049	1,091

5. 農業生産基盤 擴充 및 機械化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가 확대되어, 규모화와 비용절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 경지정리율 : ('90) 64 → ('95) 76%

- 배수개선율 : ('90) 25 → ('95) 32%

농기계 보유대수가 '90년 2,475천대에서 '95년 3,043천대로 증가하여, 경운·이앙·수확 등 벼농사 기계화율이 '90년 78%에서 '95년 96%로 짧은 기간내에 기계화가 대폭 확대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벼건조·저장·가공과정이 종합적으로 일관처리되고 있으며, 시설농업·축산 등 소득작목에 있어서도 시설 자동화, 기계화가 촉진되고 있다.

<주요 농기계 100호당 보급대수>

기 종	한국('95)	일본('94)	대만('94)
트랙터	6.7대	74	2.6
콤바인	4.8	40	3.7
경운기	58.0	61	15.6

6. 農業經營形態의 高度化 및 專業農 增加

벼농사, 전작 및 양잠위주의 농가가 감소하는 반면 축산, 채소, 과수 등 소득작목위주의 농가는 계속 증가하는 등 영농형태가 소득작목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 ('90 ~ '95 센서스 조사결과)

- 벼농사, 전작 및 양잠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가호수의 감소

· 벼 1,232 → 823천호, 전작 114 → 70천호, 양잠 2.8→0.6천호

- 축산, 채소, 과수 등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가호수의 증가
 - 축산 89→156천호, 채소 172→246천호, 과수 107→144천호

젊은층 중심으로 규모화가 진전되어, 5ha이상 경영주의 연령층중 40대 이하 비율이 49%에서 55%로 증가한 반면, 1ha미만 영세소농의 경우는 경영주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문경영체 등에 대한 위탁 영농이 증가하여 모내기 위탁영농비율이 '90년 56.3%에서 '95년 60.7%로 높아지고 있다.

7. 農家所得 增加

'95년 농가평균소득은 21,803천원으로 '90년(11,026천원) 대비 2배로 늘어났으며, 구성면에서 농외소득이 크게 향상되고, 농업소득도 미작중심에서 축산, 채소, 과수 등으로 작목이 다양화되고 있다.

- 고소득작물의 농업조수입 비중 증가
 - 미곡 조수입 비중 : 48.2 → 34.0%
 - 축산 17.5 → 24.9%, 채소 16.0 → 21.2%, 과수 7.8 → 9.6%

<농가소득 구성>

(천원)

	'90	구성비	'95	구성비	대 비 ('95/'90)
농가소득	11,026	100%	21,803	100%	2.0배
농업소득	6,264	57	10,469	48	1.7
농외소득	2,841	26	6,931	32	2.4
이전수입	1,921	17	4,403	20	2.3

부록 2

'96년도 농림수산업부문 행정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내용

분 야 별	행정규제완화 및 제도개선내용	제·개정 관련법령
<p><input type="checkbox"/> 행정규제완화 분야</p> <p>○ 농림어업인 경제활동 불편제도 개선</p> <p>○ 농림어업부문 경쟁촉진 여건 조성</p>	<p><input type="checkbox"/> 비료생산업 및 판매업 규제완화로 경쟁촉진</p> <p>○ 비료생산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선</p> <p>○ 비료판매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p> <p>○ 비료수입 정부추천제 폐지</p> <p><input type="checkbox"/> 종자수출입제도 개선</p> <p>○ 주요농작물종자 수입추천제를 신고제로 전환</p> <p><input type="checkbox"/> 인삼산업에 민간참여 활성화</p> <p>○ 홍삼전매제 폐지(제조 자유화 허용)</p> <p>○ 5년근이상 인삼에 대해서만 품질인증 차원에서 생산지정제, 5년근 이하는 신고만으로 재배 자유화</p> <p><input type="checkbox"/> 농지제도의 운용 효율성 강화</p> <p>○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축소(12→7개항목)</p> <p>○ 농지관리위원회 비확인 농지전용을 공공시설외 공단지역 등으로 확대</p> <p>○ 농지교환·분합사업시 비농민 소유농지 포함</p>	<p>비료관리법</p> <p>- '95. 12. 6 개정</p> <p>- '97. 1. 1시행예정</p> <p>주요농작물종자법</p> <p>- '94. 12. 31 개정</p> <p>인삼산업법</p> <p>- '95. 12. 6 제정</p> <p>- '96. 7. 1 시행</p> <p>농지법</p> <p>- '96. 1. 1 시행령 제정</p>

분 야 별	행정규제완화 및 제도개선내용	제·개정 관련법령
	<p>□ 양곡관련사업 규제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양곡판매대상 포장 단량 상향조정(5→20kg 확대) ○ 정부양곡 바지선 전용사용제 폐지 <p>□ 농업인 식품제조 및 가공업 참여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농수산물 이용시 시장·군수의 별도 영업시설기준 설정 운용 허용 <p>□ 산림행정규제완화 및 부담경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목 벌채 한도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주 : 2→5m³(연간) - 임업후계자 : 5→10m³(연간) ○ 대체조립비 및 전용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개발사업시 일시적인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되는 경우 (예 : 공사용 진입도로 등) ○ 리기다소나무 벌채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기준에서 일정조건 충족 시 벌기연령 이전 벌채 허용 	<p>양곡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12. 30일 시행 규칙 개정시행 <p>산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8. 30 시행 규칙 개정 - '96 하반기, 시행 규칙 개정예정 - '95. 12. 16 산림청 훈령 개정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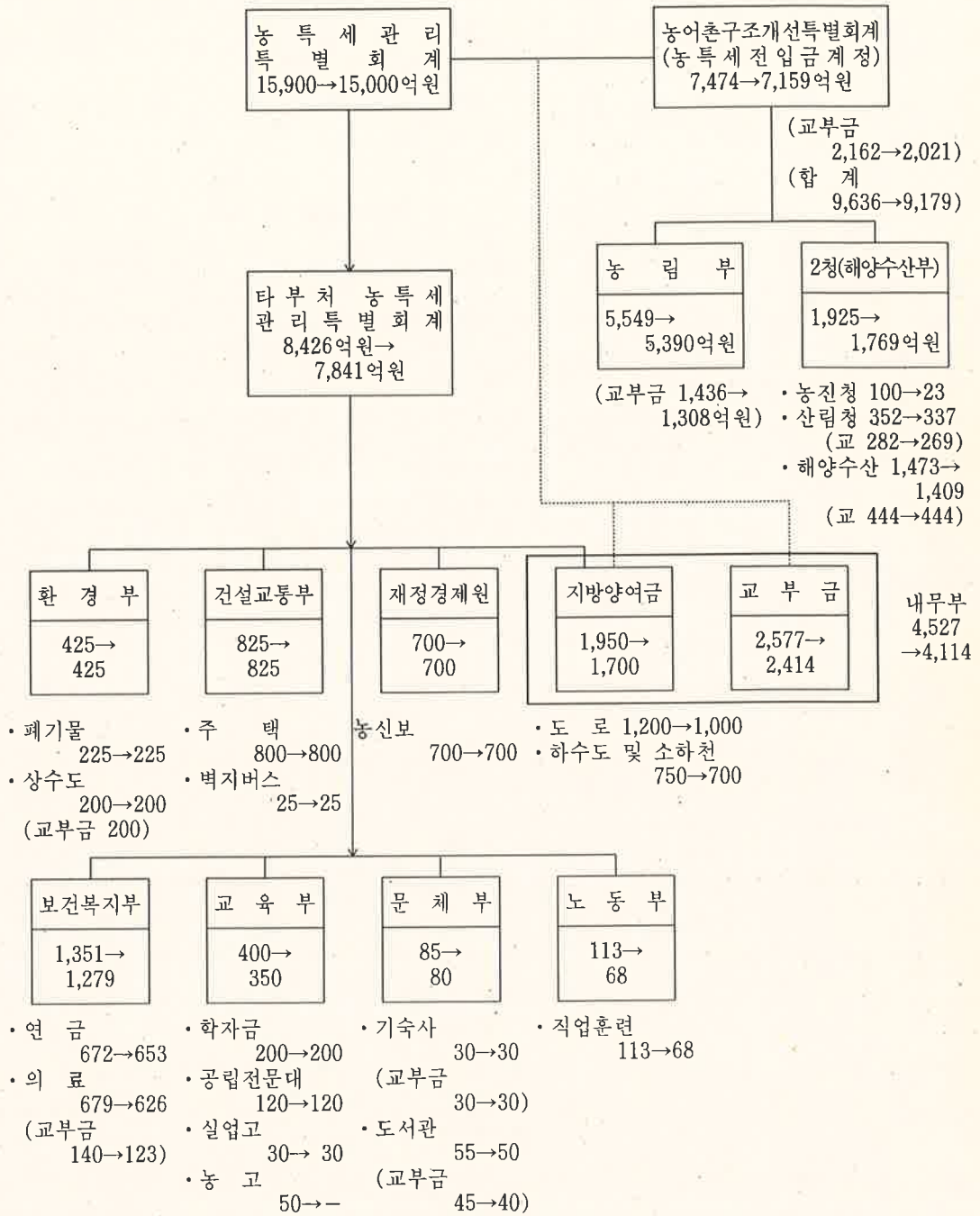
분 야 별	행정규제완화 및 제도개선내용	제·개정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창고업 인가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은 농업창고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 마련 □ 농지개량조합 운영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량조합의 인사 및 예산권 행사 자율성 강화 ○ 농지개량조합 자립육성금고 설치 허용 ○ 조합 경영합리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합병·분할·해산명령제 도입 - 조합설립기준 신설(난립 방지 목적) - 조합장 결격사유 기준 강화 □ 관광농원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시 경미한 변경사항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농촌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담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권개발사업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시 신규취득 농어촌주택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면제(단, 전용면적 100㎡이하) 	<p>농업창고업법 - '96. 8. 14 동법폐지</p> <p>농지개량조합법 - '95. 12. 29 제정 - '96. 6. 30 시행</p> <p>농어촌정비법 - '96. 1. 1 농림부 훈령 개정 시행</p> <p>주택건설촉진법 - '96 하반기 시행령 개정예정</p>

분 야 별	행정규제완화 및 제도개선내용	제·개정 관련법령
<p>□ 농정제도 선진화분야</p> <p>○ WTO등 국제기준과 조화</p>	<p>□ 수산업 관련 행정규제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 인가, 신고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2종→어류, 패류, 해조류등 - 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시·도지사→시장, 군수 ○ 육상양식어업, 육상종묘 생산 어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 법령위반시 일부 벌칙 및 벌금 제도를 과태료로 전환 <p>□ 고려인삼 지리적표시제(상표권)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인삼에 대해서만 「고려 인삼」이란 상표명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삼, 미국삼 등에는 동 명칭 사용금지 <p>□ 농약 품목별 등록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안전성 자료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지적재산권 협정이행 관련 조치 <p>□ 식물 신품종 육성자 보호제(종자 특허제)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 신품종 육성자에게 종자 특허권(독점적인 상업적 이용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지적재산권협정 이행 관련 조치 	<p>수산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12. 30개정 - '96. 12. 31시행 <p>인삼산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12. 6 제정 - '96. 12. 31 시행 <p>농약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12. 6 개정 - '96. 12. 7 시행 <p>종자산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12. 6 제정 - '97. 12.31 시행 예정

분 야 별	행정규제완화 및 제도개선내용	제·개정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종자보증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WP-OV) 가입준비 관련조치 □ 식물방역제도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대상병해충개념」 및 「병해충위험 분석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식물위생협정(SPS) 이행 관련조치 □ 축산물 의무등급거래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이상→도축장이 있는 71개 시·군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시장 개방 대비 국내 축산물 품질고급화 촉진 	<p style="text-align: center;">상 동</p> <p>식물방역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12. 6 개정 - '96. 12. 7 시행 예정 <p>축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9. 6 축산물 등급화거래규정(고시) 개정 시행

부록 3

'96, '97 農特稅 豫算 體系圖



※ 농어업경쟁력강화 농특세예산 : 9,043억원(농특세 예산대비 60.2%)

→ 농림부 및 2청(해양수산부) 예산 7,159 + 농림부 교부금 2,021 + 재정경제원 700(농신보) - 해양수산부(여객선건조) 37 - 농림부(암반지하수) 400 - 교부금(암반) 400

世界貿易機構協定の 이행에 대응한
'96년도 農林水産業 構造調整事業 시행내용 보고서

1996年 11月 日 印刷

1996年 11月 日 發行

發行：大 韓 民 國 政 府
編輯：農 林 部 農 政 企 劃 課
印刷：東 洋 文 化 印 刷 株 式 會 社

〈非賣品〉